

조선대, 국제교류 선도대학으로 거듭난다

아프리카·인도·몽골 등

‘세계인의 조선대 동문화’

33국 185개 대학·기관 협정

조선대학교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등 국제화에 큰 결실을 거두며 국제교류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조선대는 서재홍 총장 취임과 더불어 ‘지역대학의 한계 극복은 국제화로 가능하다’라는 모토로 국제화 지표를 높여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33개국 185개 대학·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조선대는 ‘세계인의 조선대학교 동문화’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 무한한 가능성의 IT강국 인도, 경제 개발의 한창인 몽골 등 세계 전역에 진출해 조선대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국가별로 인적,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충해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산업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 조선대 동문이 리더로 활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조선대에는 대학원생을 포함해 총 313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2015학년도 1학기에는 100여명이 새로 입학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적으로 2학기 입학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2학기에는 유학생 숫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아프리카 케냐 케냐타대학에 조선대 유학생상담센터를 개설해 아프리카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조선대와 아프리카 학생들이 교류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성과로 오는 3월에 케냐타대학 학생 3명이 조선대에 유학을 계획한다. 이와 함께 잠비아 코퍼벨트 대학과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대학 등 아프리카의 6개대와 협약을 맺고 조선대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선대는 지난해 아프리카 케냐 케냐타대학에 유학생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몽골과의 국제 교류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재홍 총장 취임 이래 몽골의 7개 대학·고등학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현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결실을 맺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해 교류협정을 체결한 몽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몽골리안 국립과학기술대학과 오는 3월 국제에너지자원 공동연구소를 개설,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조선대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접목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교류협정을 체결한 몽골 민족대학교와도 본격적인 교류에 들어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환학생 11명이 조선대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또한, 몽골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발전가교고등학교에 조선대 유학생센터를 열어 몽골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조선대에 유학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조선대는 의료 분야에서도 울란바토르 송도병원과 MOU를 체결해 몽골 제2위의 재벌 총수를 비롯한 의료관광단이 조선대병원에서 검진과 치료를 하고 관광을 하기로 했다. 몽골의 대학, 병원들과 협조해 조선대병원으로 몽골 현지 환자를 지속해서 유치해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대는 또한 산학협력단에서 생산하는 장흥과 완도의 친환경 김과 미역, 자반, 다시마, 청각, 톳, 쌀수수 등 각종 해조류 제품을 몽골의 대형 백화점 3곳에 납품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조선대 국제화를 총괄 지휘하는 박대환 대외협력처장(독일어문화학과)은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고 전기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원과 전기 분야에 집중하고 1000종류가 넘는 몽골의 생약 자원을 연구하는 인력을 지원해 생약 연구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며 “아프리카 대학들과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그곳의 풍부한 자원과 조선대의 수준 높은 연구 능력을 결합한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동신대 뷰티미용학과-(주)코아피 산학협정 체결

졸업생 헤어디자이너 채용 등 활기

산학협정을 체결하고 현장 맞춤형 산학협동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해온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와 (주)코아피가 교육과정 이수 제1호 졸업생 2명을 코아피 소속 미용그룹의 헤어디자이너로 배출했다.

(주)코아피는 헤어컷도, 헤어12.5, 헤어컷도 살롱 & 스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굿지의 미용그룹으로, 동신대 산학협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월 졸업하는 이현화·황지혜씨 등 2명을 디자이너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인턴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지만, 현장맞춤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 교

육과 함께 방학과 주말을 활용해 실습 교육을 받고 최종 승급 테스트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헤어디자이너로 취업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동신대 뷰티미용학과(학과장 강은주)는 지난 2013년 (주)코아피(대표이사 홍성희)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산학협동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코아피 그룹 산하 13개 지점 직원들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홍성희 대표가 동신대 뷰티미용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돼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교육을 맡아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사 시험 43명 합격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항공서비스학과는 2014년도 항공사 공채에서 총 4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2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항공서비스학과는 국내 메이저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공채에서 객실승무원 12명, 대한항공 공채 객실승무원 6명, 이스타항공 객실승무원 4명, 남방항공 객실승무원 3명 등을 배출했으며 항공사 지상직을 포함해 2014년도에

만 총 43명의 항공사 합격자를 배출했다.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학과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만 182명, 항공사 지상직 62명을 합격시켜 총 244명의 항공사 합격자를 배출해냈으며 국내 최고의 여자대학 항공사관학교로서 항공사 합격자 배출 1위의 명성과 지력을 이어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고3 대상 제과제빵사·바리스타 교육

고용부 위탁기관 선정...3월부터 10개월간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가 제과제빵사 및 바리스타를 꿈꾸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동강대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5학년도 일반(자율)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위탁기관에 선정돼 오는 3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으로 제과제빵사 및 바리스타 부문 교육을 진행한다.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일반고 3학년 중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강대는 호텔조리영양학부 주관으로 3월부터 10개월 간 고품질의 과자

류를 만들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경영·판매·생산·위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이미지 메이킹, 실전 성공취업전략, 직업윤리 등의 과목을 전체 훈련시간 대비 5.4%를 편성하는 등 직업기초소양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분야가 서비스업중임을 감안해 인사 및 전화 예절, 고객응대실무, 셀프리더십 등 자기개발 향상과 고객만족교육도 실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메카로

9년 연속 정부 지원 선정...지역 수출 침병 역할도

광주대학교가 국가 공인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서 광주·전남지역 21개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이론과 무역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서울권 2개대·수도권 5개대·충청권 5

개대·경상권 7개대·전라권 5개대 등 총 24개 대학이 선정,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양성사업단은 지난 2012년 말 송대인(중국어학 4년)씨가 지역무역업체를 도와 스페인에 60만 달러의 진공 지퍼백 수출 계약을 달성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보여 왔다.

특히 지난 8년간 총 150여 차례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에서 500여명의 지원단을 파견, 800만 달러 규모의 수

출계약을 달성하는 등 무역전문가 양성은 물론 지역 수출 침병 역할도 푼듯 해냈다.

김갑용 사업단장은 “한·중 FTA의 발효 등으로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화권에 특화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친환경 식품 및 생활용품의 수출마케팅 지원과 무역인력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사업단 8기 요원 23명은 지난 1월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진출 자동차 합작기업인 베

이징현대를 찾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의 현황을 체험했다. 또 베이징역에 입점한 한국브랜드무역관에서 한국의 화장품 및 친환경식품의 중국내 진출현황 및 중국에서의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직접 체험했다.

이와 함께 중국 북경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스포츠용품 박람회를 참관해 중국에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아웃도어 제품의 시장현황을 둘러보고, 한국의 고급 아웃도어 제품의 중국진출을 위한 시장동향도 파악했다.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표적 음식점 성공업체인 자하문을 방문해 중국의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성공 노하우를 공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